

##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빌1:3-11)

교회에 구석구석 모든곳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 볼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인생치유의 실적인 근본이될 수 있다. 근본중에 근본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안에서 조금더 근접된 실제적인 삶이 이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마디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면 다르겠다. 이것은 전도도 마찬가지이다. 그냥 전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사업도 이와 같이 한다면 이와같다. 직장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여기 왜 왔어 내가 공부를 왜해? 근본에 대한 터치가 이 단어인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다. 치유, 응답, 정복, 승리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기도없이 응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통하면 기도응답없이 응답받는다. 그냥 응답받고 넘어가는게아니고 정복이다.인생, 현장,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 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우리는 전도를 일과성, 일대일 전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정,연습이다. 결국 정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 지역에 사단의 머리를깨고 그 지역을계속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중에 사단에 잡혀있는사람을 계속 살려내는 일을 일과성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여 정복하는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냐 이말이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 사도바울은 이런 사람이기에 이 단어를 쓸수 있었다. 다른 사도들은 없었다고 볼수 없지만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단어들에 굉장한데 그 시대에 사도바울이 신조어를 만드것이200몇십개이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새로운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이다.

### 1.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

바울에대하여는 설명할 단어들에 많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바울에대한 중요한 설명중에 하나이다. 8절에 내가 이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으로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다.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고 세상에는 이런 것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정도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준다. 결론을 이야기 하면 사도바울은 1000년의응답을 받은 사람이다.기독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문화를 통해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조그마한 복음운동이 로마권력의 무릎을 꿇게 했다.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문화가 지금까지 있다. 횡수로 따지면 천년만이겠는가 지금도 세계의 영향을 주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지금도 운명에서 건진다. 무슨 수를 써도 절대 안되는 그게 운명이다. 이제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 운명이다. 이런 시대적인 천년의 일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내용이다. 잘 생각해보면 천년의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천년의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빌립보 교회는 행16장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세워진 교회로 기록된다. 그집이

거점이 된 후 귀신들린 여인을 고친후에 세워졌다.그 소동 때문에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참 놀랍다.그런 밤중에 하나님앞에 찬미하고 기도한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었다.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죽어야 한다. 이 간수가 어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선생들이여 하며 무릎을 꿇었다. 바울이 마게도냐 가기전에 드로아에서 갈등하였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고 땅끝까지 가라고하여 열심히 하고있는데 문이 안열리고이상하여 기도하고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바꾸었다. 이렇게 세운교회가 빌립보교회인데 평생 추억이있는 교회이다. 이런 내용을 가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나하보면 천년의 응답이다. 6절에 너희 안에 착한일을 시작하신 이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줄을 확신한다. 착한일은 구원이다. 저주에서 운명에서 건지는 일이 착한일이다. 그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유는 7절 너희가 내 마음에있다. 이것은 사도바울의놀라운 표현중에하나이다.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에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줄을 나는 확신한다.잘못들으면 네가기준이냐고 할 수 있다. 그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이유를 또하나 나의 메임과 감옥에 들어간것과 변명함 말해서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지금까지 은혜에 참여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했다. 내가 현장에서 이런 저런일을 당하며 복음전하는 과정속에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여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년의 응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줄을 반드시 확신한다. 또하나 권면이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였다. 1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이었다. 얼마나 사도바울이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담고 있는지를 보는 대목이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라 그리고 거기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말했다.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 언약이다. 이런 고백과 권면을 가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에 진보가 된다고 하였다. 감옥에 갇혀서 안과 밖에 다 소문이 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제들 중에서 다수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감옥에 온것이라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지도자가 잡히면 낙심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다. 놀라운일이다. 이런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바울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신경쓰지 않고 그들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상관없이 더 잘되고 있다 나에 대하여는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답이 난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계획이라고 답이 났다. 자기의 결론에도달한다고 답났다. 자기에대하여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악한 소리를 해도 비난을 해도 그리스도면 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뻔허라는 영화를 다 알 것이다. 그 작가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자료를 찾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 쓴작품이다. 작품인생이 되었다. 인생이 무슨짓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능력이 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인간은 하나님께 이용당할 수 밖에 없다.이것이 인간의운명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사람들은 전부 지뜻대로 한다. 하나님뜻대로 해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완전 역전 인생이 되었다. 그게 성경이다. 많은 예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살려고 한다. 오늘도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가 누구에게 조금 당하면 화가 난다. 영적문제이다. 내 태도를 고쳐야 할 육신문제가 아니고 영적문제 사단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문제 사단문제이다. 이것이 내 모든 생각과 문제의 근원이다. 내가 어디를 치유해야 하는가 여기를 치유해야 한다. 지금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의 계획도 된다. 인간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무슨일이 일어나도 상관 없다.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 그냥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끝이다. 아무일에 관여할 일도 없을 정도로 답이 났다. 그 인생을 아낌없이 통째 드릴 수 있었다. 그는 발견을 했다. 무엇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이상 나는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사람이 한고백이 오늘 말씀이다 우리가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메임과 변명함과 복음에 확정하는 일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어 어떤 사람이든 복음으로 확정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된다.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사실은 답이 아니다. 안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정도로는 무너지고 작품 인생은 안된다. 그래서 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세상에 모든 것으로부터 이것을 따로 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별하라. 그의 보혈이 네 인생과 문제의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이다. 혼미해서 이리 저리 가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이다. 천년의 응답의 언약이다. 드러와서 내 것이 되어지면 천년의 응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성경의 모든 약속에 네 안에 성취된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냥 써놓은 책이 아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살아있는 책이다. 눈이 열리면 발견하는 것이다. 사람은 눈이 열리는 대로 바뀐다. 이것을 위해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탕이 안 되면 내 고집 때문에 안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네 주위에 무슨일이 일어나도 상관 없다. 내가 기록한 말씀을 똑똑하게 읽어보고 참고하고 다시한번 언약으로 잡고 마음에 심고 결단을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이다. 사도 바울은 양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 2. 기도하는 사람

바울은 천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기도의 사람이다. 그의 서진에 보면 여기저기 기도예대하여 말한다. 엡6:18 모든 기도 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잘 되는 사람은 드물다. 살전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지는 않는다. 안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하지 하라고 하지는 못한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간구할 때 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5절에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마음이 오면 자기 인생에 천년의 응답이 온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도 이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막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

는 과거에 이말에 많이 놀렸다. 복음안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에 상당히 놀렸다. 왜냐면 이렇게 할만한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많이 바뀌었다. 하나님이제는 진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자. 간질병 아이를 치유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다. 언약있는 자에게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하는 해가 올해 언약이다. 의미 있다. 이런 저런 문제 치유받을 분도 있고 만일 기도가 되어진다면 치유 안 될 일이었다. 아주 틀림없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간다고 했다. 과거에는 질문했다. 언약으로도 안 된다는 뜻인가? 기도는 하기 싫고 언약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언약과 기도는 구별되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하면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주에 중요한 훈련 성경적 전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는가라는 훈련이다. 하나님이 가고 싶은 자리가 전도이고 복음은 근본이고 출발이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근본인데 우리 인생에 출발이다. 근본이기에 마지막 에도 복음이어야 하고 우리 인생에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전도이다.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바울은 전도에 대하여도 천년의 응답을 받은 자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고 전도이다. 바울이 가진 복음과 같기에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미국교회에 성경적 복음과 전도를 한다면 살릴 수 있다. 미국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고 미국 대통령이 세계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구약성경의 핵심은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소설책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신 일을 해석한 내용이다. 결론은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알고 있겠는가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축복이고 선택이다. 누구를 위한 선택?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었으니 너는 나가서 이것을 말하라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다. 천년의 응답의 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심장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30년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전도팀을 모집할 것이다. 나의 평생의 전도현장을 두고 1주일 현장에 가고 보고를 할 사람을 모집할 것이다. 안 되어도 되어질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모집할 것이다. 이 팀들과 점심을 먹을 것이다. 따로 시간 만들기가 힘들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었다.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아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내용이다. 구체성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결심을 했다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다. 마음에 뜻이 있고 결심이 있는 사람은 이은철 목사에게 등록을 하라 혼자 하려면 지속이 힘들 것이니 2-5명 팀을 묶어 등록을 하라. 이번에는 될 때까지 할 것이다. 뒤돌아 가는 법은 없다. 그리고 반드시 될 줄 믿는다.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이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고 손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더 이상 배울 것 없다 다 배웠다. 남은 것은 현장을 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로 연말에 받은 기도하는 해라는 단어가 새롭게 의미가 있다. 동참하여 천년의 응답을 받으시라 이 응답을 후대, 미국, 남미에 남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